

#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대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상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뽕따피아  
http://www.budchapia.com/mem/hanmaum

## 법공양 페이지

# 물질·정신계 함께 작용해야 걸림없어

### 마음 속에서 나오는 병고·액난 나오는대로 되맡겨 놔야 다시 입력돼 현실의 것 나와

벌써 날씨는 겨울날씨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갈 때 활나팔나 변해서 돌아가듯이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정신계는 무시하고 물질계에만 집착하여 정신계의 50%만 넣고 물질계가 맞지 않습니다. 정신계의 50%와 물질계의 50%가 맞아서 같이 작용을 해야만 100%가 되는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모두 바깥에서 꼬달리고 바깥으로 이빨을 찾고 바깥으로 형상을 찾고 바깥으로 허공을 보고 모든 것을 허무하다 하고 이렇게 나가시니 50%는 감추어져서 100%가 같이 돌아가지 못하는 이치가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걸리지 않고 순수하게 돌아가겠습니까. 모두가 걸리고 액과 액난이 거들거들 닦쳐오고 결국 내용도 이끌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오게 되는 거지요.

에너지 공간 나오게 돼있고, 그 양면이 없애지고 불이 번쩍 일어나듯이 여러분들이 가져온 재료가 성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했다고도 할 수 없고 여러분 중에 어떤 상태가 했다고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것을 좀 지켜보면 내가 했다. 내가 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공해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독불장군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반면에 그러면 바로 얼마 아빠가 아이를 낳는데도 낳았다고 내 자식이라고만 할 수도 없고 남편자식이라고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게 보면 모든 문제들이 내자식 내자식이 따로 없고 내형제 내형제가 따로 없다는 그런 이치로 돌아갑니다. 그럼으로써 하지 않았다고도 아니요 했다고도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했다 안했다 이것이 없습니다. 내 자식이다 내자식이다 그것이 없습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중생이 다 무심이 와서 달라고 하더라도 무심이기에 모든 게 들어놓은 것이 두드러짐이 없고 그것은 많이 이렇게 걸려서 내보내도 또 주는 사이가 없다 이겁니다. 알아들이 쉽게 느라고 영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왜 묘한가 하면 그것은 체가 없고 만물을 다 한가지로 비유할 때 목신한데 목신과 인간의 마음이 한마음이 된다면, 내가 목신이 될 수도 있고 목신이 인간도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를 자르면 탈이 난다고 하는 것도 못이 아닌 까닭에 그 마음을 내 마음에다 넣어서 한 마음이 된다면 그것을 잘라도 관할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단을 만들어 놓고 영가의 위패를 모셔놓고 이렇게 하는 것을 모두 없애고 그 마음이 한마음으로 들기 때문에 그 물건은 치유도 되는 것입니다.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이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이 얼마나 묘하고 얼마나 뜻이 깊고 광대무변한지... 여러분들은 얘기 또 듣고 수만번을 들어도 흘려버리다가 어느 순간 한번 딱 오는 예가 있습니다. 듣는다고 다 감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최주현

## 보이는 것 안보이는 것 100% 굴러야 중용 “밖으로 찾고 꼬달리니 고난이 생기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왜 나는 생각해본 예도 없고 말한 예도 없고 행한 예도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져오시는 것을 마음으로 가져오시죠. 나도 마음이 있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과 마음이 한데 합쳐졌을 때 그 광력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합쳐서 용을 할 때 바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과 내마음이 양면이 없애지고 그

으로 오는 사람, 영계성으로 오는 사람, 세균성으로 오는 사람, 업보성으로 오는 사람, 윤회성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 다. 이런 것을 병원에서 100%를 다해낸다고는 못합니다. 과거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정신계를 발전시키지 아니 한다면 그것을 막아 나갈 수가 없습니다. 65%는 60%등 커버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는 내 몸도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내 기정도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넓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생각하지 말고 포괄적인 하나로 생각하십시오. 한 가정이라면 한 방방안이라고 봅니다. 내가 항상 말씀드리듯 “전력은 다 똑같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죠. 방편으로 전구는 많지만 전력은 똑 같습니다. 이러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자식이 내 뒤를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싸우면서 온통 아담들을 하지 말고 그저 모든 것이 마음의 작용이니가 모든 것을 내 주인공에다 한마음

이 들어가서 우리 식구를 다 이끌어 줄 수 있고, 내 몸을 이끌어 줄 수 있고, 출사가 되는 것도 거지요. 성사가 안되는 것도 거지요. 성사가 되게 하는 것이 거기에 없다 이렇게 믿고, 거기에 맡기고 놓았을 때 식구들 마음이 점점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등은 각각이지만 전력이 같으니깐, 그러니 그렇게 밝아질 것을 애를 태우고 나가서 만들어 오느니, 나가서 무슨 짓을 하느니, 나가서 어떻게 행동 할까? 모두 잠이 안오고, 잠을 못자니 아톰바중 하나가 병은 병대로 나고, 가정은 가정대로 파괴되고 화목하지 못하고 부드러운 말이 나오지 아니하고 부드러운 행동이 나오지 못하고 모두가 악화되는 겁니다. 너그럽게 생각을 하십시오. 너그럽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배낭을 짊어지고 나왔기 때문에 과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몸 속에 벌써 현실로 수억개나 악업 선업을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거가 어디 있습니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깐 없지요. 그럼 그 배낭 속에-이

고,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니까, 모든 것은 나로 인해서 상대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태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화두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화두예요. 그대로 내가 내 주인공이 화두니까 앉아서나, 눕거나, 깨나, 일을 하나, 잠을 자나, 모든 것이 참선 아닌 것이 없어요.

선이다. 입선이다. 행선이다. 이런 것을 모두 합해서 참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앉았을 때는 앉았고, 설 때는 서서 생각을 하고, 일할 때는 일하면서 생각하고, 아 그대로 내가 없으면 일체만법을 들이고 내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바로 여러분 배낭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배낭 속에서 나오는 것을 다 다시 맡겨놔야만 이 입력되었던 것이 없애진다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천차만별로 나오는 그 액난을 어떻게 해치고 나갈 겁니까? 거기서 나오는 줄 모르고 거기서 딴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껄게 만들고, 딴 사람을 통해서 망하게 만들고, 딴 사람을 통해서 사기를 당하게 하고 벌의별 우환이 찾아드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억지로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서 모든 것을 맡겨놓고 똑바로 믿고 직선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공! 한마음 주인공! 나를 이렇게 해 주시오, 이게 아닙니다. 해 주시요 어디 있습니까? 돌아야만 유심과 무심이 어떻게 풀이 됩니까? 정신과 육체가 어떻게 풀이 됩니까. 그러니까 해 주시요 그 아니라 틀림없이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지요. 이심전심으로 수없이 통과하고 들어가는데 내 마음에 상대 마음이 가서 바로 해결을 하는 것도 내 몸중에 속에 있는 중생들을 바로 보살로 화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 없이는 내 속에 있는 이 업보성을 전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부 보살로 만들 수 없습니다. 보살로 만들 수 없으면 중용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즉 무심의 중용,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100%를 작용하면서 굴러야 되는 것이 중용입니다. 그러나 이쯤해 두어 여러분들이 질문할 것이 있으면 질문 하십시오.

### 윤회하는 주제 알고싶습니다

문 큰스님께서는 항상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시고 제 안으로도, 그리고 밖으로도 늘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한가지 어렵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윤회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점이 많습니다. 현대 과학에서는 윤회한다는 것은 유전자들 통해서 후세에게 계속 지기를 복제해 주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생활속의 불교 193

## 탑을 쌓아올리듯이 믿음으로 밀고 가라.

우리는 수행하기 위해 태어났고, 수행하기 위해 살고 있다. 하루 24시간의 모든 활동 -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세수하고, 식사를 하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말하고 움직이고, 잠을 자는 그러한 모든 행위가 다 수행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바로 진정한 나 자신에게 귀의하고, 나 자신을 회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참다운 수행자라면 진리에 순응하는 마음에 틀이 있어서는 안된다. 한시도 게을리하지 말고 일체를 맡겨 놓고 관해야 한다.

국민학교 학생이 대학 과정으로 바로 가려 해도 안되니까 열심히 해야 하듯이 모든 경계에서 한마음 주인공을 믿고 거기에 맡기기를 열심히 하면 알게 된다.

나무를 비벼서 불을 얻고자 할 때 제대로 열이 나기도 전에 문지르기를 그만 둔다면 어떻게 불을 얻을 수 있겠는가. 열심히 대서 불이 나오는 것이니 불이 불을 때까지 정진해야 한다.

고양이가 생선 가게를 노리듯,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그렇게 지나가네, 앉으나 서나 자기 본래면목을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해야 한다.

말에 걸리고 상에 걸리고,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리고 하면 공부하기 어렵다. 지옥에 떨어질까 겁나고 공지벌레 될까 겁나면 공부하지 못한다. 경계에 이렇듯 없이, 전방지족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믿고 나가라.

모든 것을 다 걸고 해보는 배짱과 당당한 포부가 있어야 한다. 좀 안다는 사람은 알아서 더는 못 나가고 모르는 사람은 알려고 하지 않아 못 나가니 모든 걸 다 내던지고 나갈 줄 알아야 한다. 한 걸 살다가 가고 또 오고 또 가고 연방 돌아가는데 찰나 생애에 알면 얼마나 더 알고 모르면 얼마나 모르겠는가. 모든 것을 다 걸고 눈 하나 깜짝 않는 태도로 믿고 맡겨라. 부처님께서 삼천大千 세계를 다 집어삼켰듯이 이왕이면 전제를 도둑질하라.

이 공부가 여간 대단한 공부 아니냐. 참으로 광대 무변한 진리이며 끝없는 공부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법인데도 불구하고 수행한다 하면서 절에 다니는 걸로 '이만하면 그냥 그냥 공부하는 것이지' 하는 사람들이 많다. 진정한 마음 공부 할 수 있는 조건이 스스로 갖춰져 있다는 것을 절실히 생각지 않는 경우이다. 일체를 하나로 묶어 주인공에 열심히 믿고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인과를 녹이고 습을 떼고 참 나를 발견하는 법이다.



모르니까 공부해야 하고 알면 아니까 또 공부해야 한다. 항상 불을 것 없는 것을 불고, 앉으나 서나 일을 하면서도 늘 주인공을 염해야 한다.

아무리 사소한 생각이라도 허투루 하고 한데로 떨어뜨리면 안된다. 한 번에 몰아서 하거나 크게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능한 한 꾸준히 침착하게 해 나가야 한다. 아무것도 바라는 바 없이 그렇게 해 나가노라면 어느 사이엔가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세상이 밝고 아름답게 보이게 될 것이다.

탑이 올라가는 것을 보라. 돌을 하나씩 쌓아 올릴 때 먼저 주춧돌을 놓듯이 주인공에 일체 경계를 놓고 믿음의 안테나를 세워야 한다.

물이 흐르는 것을 보라. 가다가 구덩이를 만나면 채우고 다시 흐른다. 바위나 언덕을 만나면 끼고 돌아 흐른다. 참 나를 찾는 공부도 그와 같아야 한다.

마음 공부는 어떤 학문을 전공하듯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공부는 한시도 끊어질 수 없고 끊어져서도 안되는 공부이다. 그러나 끊어지지 않는 공부이므로 생활이 곧 불법이자 불법 공부임을 잘 살피야 한다. 물고기가 물에서 온갖 살림을 다 짓듯이 우리는 주인

공을 믿는 마음속에서 온갖 일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살다 보면 앞뒤가 꼭 막혀 어떻게 해 볼 수조차 없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지는 때가 있다. 이러한 때 믿음이 흔들리고 공부가 뒷걸음질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더욱 정진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가 진퇴양난의 처지에서 생각해야 할 점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이끄는 근본은 주인공뿐이라는 믿음이다. 그러한 믿음하에서는 직면한 난관조차도 주인공이 나를 위해 제공하는 공부의 기회가 된다.

공부하기를 몇 년이 되었다, 몇십 년이 되었다 하는 세월 계산은 아무 의미도 없다. 50년 간 공부했다 해도 5일 공부만 못한 경우도 있고 5일 간 공부했다 해도 50년보다 나은 수 있다. 근본 자리에는 시공이 없는 것이니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간의 많고 적음이 마음 공부에는 해당될 일이 아니다.

이 공부에는 길다 짧다의 기약이 없다. 삼천 년이 한 찰나가 되는 공부이므로 빨리 해야 하겠다는 것은 부질없는 생각이다. 묵묵히 참구하라. 마음법에 있는 온갖 오자든 병법이란 것이 있을 수 없다.

협찬: 김재영 김순옥  
김지양 김하석